

# 에이즈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마치고

주진화 / 경수중학교 양호교사

어 마전 신문을 읽다 이런 글귀를 발견했다. "프랑스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귀를 기울여 보라. 그의 3백 60여 가지에 이르는 예언이 단 한가지도 맞지 않는 것이 없다 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그 중에서도 앙리 4세, 프랑스혁명, 나폴레옹, 히틀러, 히로시마, 케네디 암살, 여성우주비행사의 출현 등에 관한 4행시는 놀라운 예언이다." 그는 1993년 9월 인류를 강타할 큰 재앙은 "피와 정자의 페스트"라고 밝혔다. 이것은 바로 후천성면역결핍증인 에이즈를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이즈가 20세기말 이전에 지구인구의 절반을 감염시킬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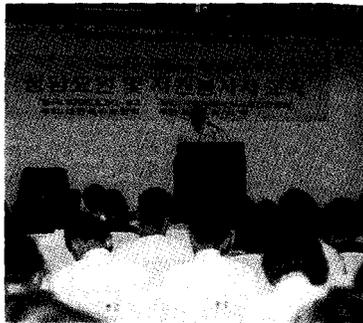
현재 에이즈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95년 6월 30일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 집계된 환자수는 116만 9천 8백 11명으로서, 1994년 6월보다 15.8%가 증가되었다. 첫 환자가 발견된 1981년 이후 14년 동안 환자의 증가추세는 가히 놀랄 만하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의 낮은 보고율, 보고지연 및 진단미비 등을 고려하면 아마도 현재의 약 4

배에 달하는 500만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하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적중한 것이다. 하지만 에이즈는 천재지변이 아니다. 천재지변이라면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항력이겠지만, 에이즈는 인간의 힘으로 미리 막을 수 있는 재앙이다. 지혜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는 의료인의 한사람으로서 강한 소명감을 느낀다. 더우기 Primary Care를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라는 나의 위치는 에이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하지만 한번도 에이즈에 대해 따로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안내 책자에 의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습득하였기에 에이즈 예방을 위한 학생교육은 늘 뜬구름 잡기였다.

어느날 "에이즈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관한 공문을 접하고는 가뭇아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개회사 중인 김모임 연세대 보건대학원장 본회 부회장



'에이즈감염자의 심리상담'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정순복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에이즈 상담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김준형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인 교육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의구심은 시간 낭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양호실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면서 교장선생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걱정스러웠었다. 많은 고심 끝에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렸고, 제발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기를 희망했었다. 이런 나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 강의 첫시간부터 밝혀졌다. 열성으로 강의하는 강사님과 관심있게 청취하는 수강생의 혼연일체는 가히 종교적 의식이었다.

이 지면을 통해서는 에이즈 감염자들을 수용하는—허용이 아닌—자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에이즈의 역학적 측면, 병리학적 측면, 임상증상 및 치료 등은 이미 많이 접해 보았거나,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식상한 얘기가 되기 쉬울 것 같다.

강의 마지막날 에이즈 감염자와 대화의 시간이 있었다. 호남형의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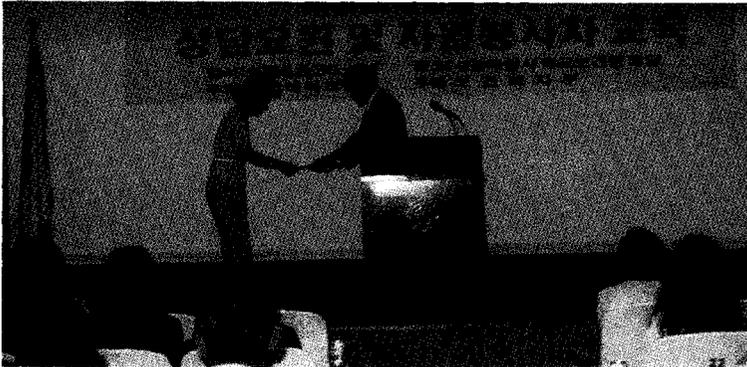
자가 강단에 설 때까지도 그가 감염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얼마가 지나서야 그가 진짜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당당함 앞에 그리고 그의 에이즈예방을 위한 소명 앞에 너무나 감동했었다.

현재 60여명이 “희망나눔터”라는 조직을 형성해 생활하고 있고, 에이즈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AIDS는 잘못된 성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개념이 선입견과 불이해를 형성하고 그들을 우리사회에 매장시키고 있다. 에이즈에 감염되어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보다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이웃에게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라고 한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단죄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신만이 우리의 죄를 심판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는 이외에 그 무슨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중에 죄없는 자가 그 누

구란 말인가?

물론 그들을 따뜻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성에 대한 인식이 비밀스럽고 부정스러운 현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들을 따뜻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뒤따라야 하리라 본다.

첫째로 법률적 측면이다. 1987년 11월 28일 특별법인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부당한 차별의 방지, 개인의 신상비밀 보호, HIV감염의 신고, 일부 대상인구에 대한 검사 의무 등을 규정하여 에이즈 예방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들은 대부분 이미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



상담 지원봉사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최강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본회 부회장

보다 행위적 측면의 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의 생계대책은 무엇보다 선행하여 법적 구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기본적으로 에이즈 감염자라고 해서 다른 전염병환자에 비해 특별히 월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단지 아직은 나쁜 쪽의 대우가 지배적이므로 감염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로 교육적인 측면이다. 이 분야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파급효과가 크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교과과정에 에이즈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다. 일본은 96년부터 보건교과서에 AIDS를 넣는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여론을 이용한 교육이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에이즈에 관한 칼럼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여론 책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론 주도층을 위한 연찬회나 세미나를 가능한 대로 개최하여 공

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측면이다.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가정의 형태가 변했다. 가정의 형태변화는 각 구성원의 역할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면서 성역할의 변화도 일어났는데, 이 성역할의 변화는 성혼란을 초래하여 사회문제가 되었다. 성의 상품화, 무절제한 성생활, 혼전 성관계, 혼외정사, 성에 대한 다른 기호자 즉 호모나 레즈비언 등이다. 우리사회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학적인 노력에 의해 우리사회의 성도덕을 확립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에이즈에 노출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다.

에이즈의 이성감염자가 증가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 성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는 특히나 성에 대한 자기의 Identity를 갖는 것이 피해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학문적인 노력이다. 에이즈의 가장 이상적인 치료제 개발, 에이즈 감염자나 환자의 효과적인 발견방법과 교육방법, 수혈에 의한 전파방지방법 등의 연구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간호학과에 들어가 전공 첫시간에



‘에이즈의 경제, 사회적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김진현 인제대 인문사회대학 교수

간호윤리를 가르쳐 주시던 깊은 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종과 성별과 종교, 사상을 떠나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행해져야 함을 가슴깊이 새기며, 이 직업이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가 하는 자부심과 소명감을 느낀다. 이 교육을 기획하고 주관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형철씨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A